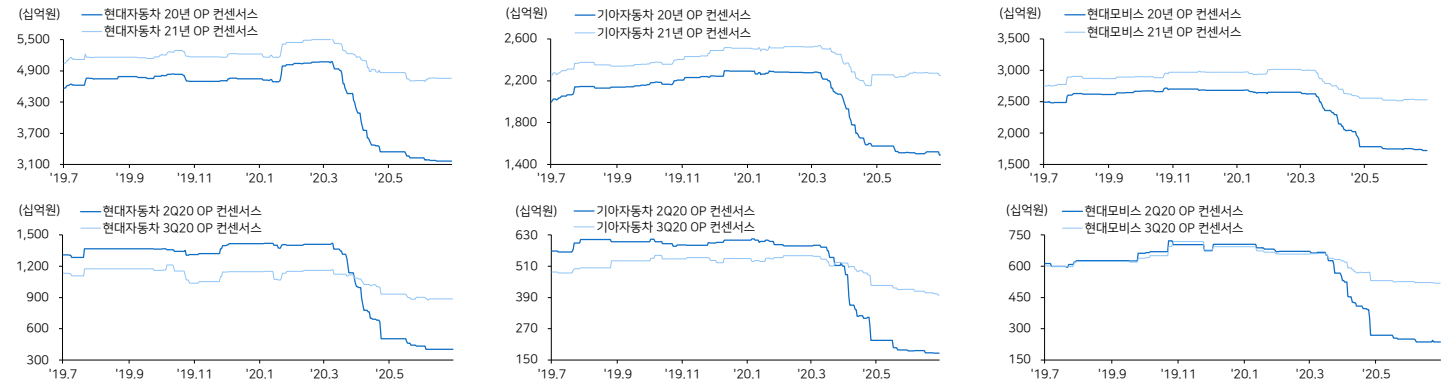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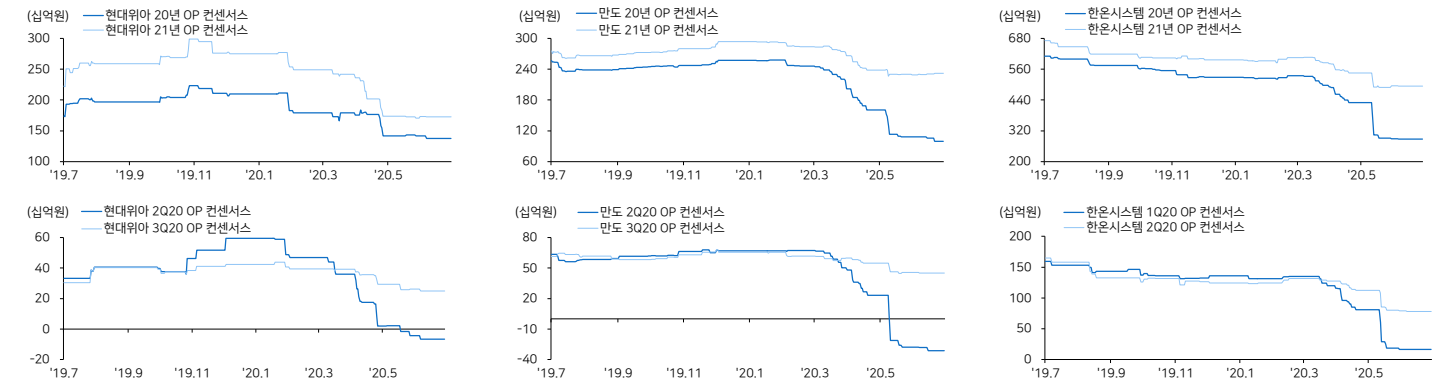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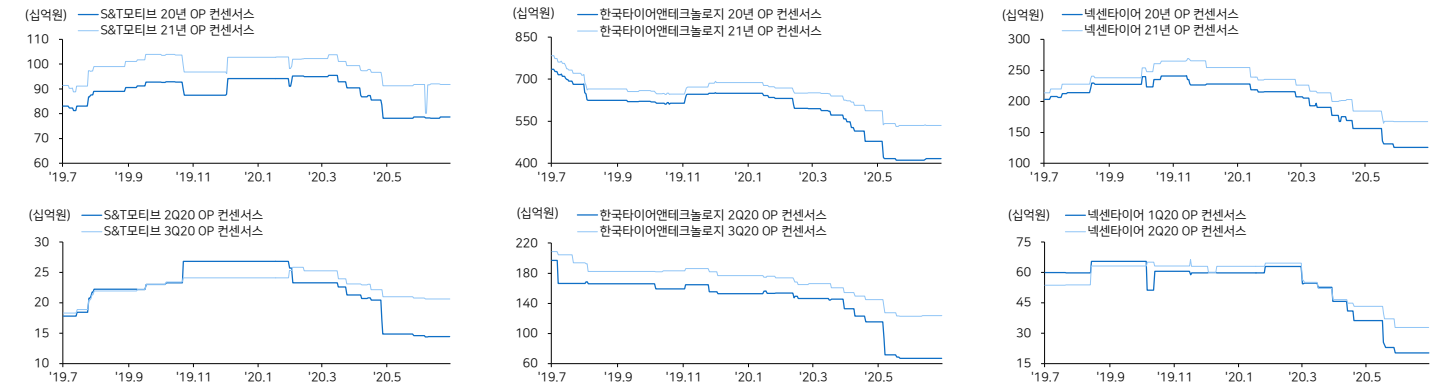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벤처·스타트업 투자 1위는 현대차, 2위 네이버 (노컷뉴스)

대기업 가운데 현대차가 유망 미래기술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됨.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500대 기업이 전체 464곳의 스타트업·벤처 기업에 총 2조7천29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힘.
<https://bit.ly/2ZtXGgb>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2분기 판매 24% 감소... SUV 실적은 호조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며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2분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다만, 팔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소매 판매는 두 달 연속 증가.
<https://bit.ly/31xajmF>

수소차 '넥쏘' 타고 온 정의선...현대차 수소 리더십 키운다(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미래 수소 모빌리티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함. 현대차는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해 수소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응용제품 등을 선보임
<https://bit.ly/2Zw2Wcz>

현대차·벤츠·포르세 등 10차종 11만대 리콜 (조선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세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10만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힘.
<https://bit.ly/2VEe3Pp>

현대차 기아차 6월도 국내판매 호조, 해외판매도 점진적 회복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6월에도 국내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감.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그동안 반토막 났던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남.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5386

현대차, 러시아에 엔진공장 세운다...기존 자동차 생산공장 이어 (연합뉴스)

현대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러시아에 자동차 엔진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인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엔진공장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힘.
<https://bit.ly/2VC00tw>

현대차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모션...최대 10% 할인 (뉴스엔)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제공.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https://bit.ly/3dQEXdd>

이벤트 머스크 '입' 덕분... 테슬라 주가 1000달러 넘어 (조선닷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1000달러 선을 넘었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2분기에는 손실에서 벗어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이메일을 보낸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
<https://bit.ly/3eSB5C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